

## 건강보험의 위기타개, 중지(衆智)를 모으자



鄭敬培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이 땅에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문턱을 밟기 어려운 시절에 정부는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였고, 부단한 노력으로 제도 도입 12년만에 전국민이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하였다. 의료보험은 한때 정부의 정책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기도 하였다.

의료보험은 지난 해 7월 조직이 통합되면서 건강보험이란 새로운 이름으로 출발하였으나, 의약분업의 도입을 계기로 의료계와의 갈등과 더불어 취해진 일련의 수가인상은 건강보험을 재정적 위기로 몰아넣었다. 건강보험이 그동안 잠재적인 적자요인을 안고 있었으나 의약분업과 같은 의료정책상의 큰 변화가 건강보험 재정에 직접적인 충격을 미침으로써 위기의 본질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더군다나 정부 수립이후 최초로 정부의 정책과제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건강보험 재정위기의 원인에 대하여 통합의 탓으로 돌리기도 하고,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수가의 인상으로 돌리기도 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통합의 무죄론을 주장하고, 의약분업에 따른 재정위기는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다고 논박하고 있다. 재정위기는 이미 예상되었던 것이고, 의약분업의 혜택이 보험재정증가로 나타났다는 주장이 부분적으로 설득력을 갖추

고 있다. 한편, 재정위기를 초래한 수가 인상을 정부의 실책으로 몰아붙이기도 하는 반면에, 다른 편에서는 의약분업에 따라 처방과 조제가 분리되므로 새로운 수가 신설되는 것은 당연하였다는 주장이 대립되기도 한다.

이처럼 위기의 원인에 대한 진단이 입장에 따라 다른 만큼이나 위기의 해법을 놓고서도 전문가들마저 각양각색이고, 속을 들여다보면 근본적으로 '의료'에 대해 접근하는 인식에 많은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의료부문에 있어서도 소위 진보와 보수수의 갈등이 이론적인 면에서나 감정적인 면에서 심각한 격돌의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의료계-약업계-소비


자정부간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난국을 이겨내기 위한 사회적인 합의를 마련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서, 이것이 재정위기보다 정작 더 무서운 위기라고 말할 수 있다. 어느 사회에서나 이러한 이념과 이해득실의 대립은 존재하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적인 규칙이 바로 서 있지 못한 점이 아쉬울 뿐이다.

아울러 통합과 더불어 탄생한 거대한 노동조합은 공공부문의 구조조정과 맞물려 사회적인 저항세력으로 등장하면서 숱한 갈등과 폭력 사태까지 야기하였다. 더구나 지역노조와 직장노조간의 노노갈등까지 가세하여 건강보험에서의 노사갈등은 더욱 증폭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건강보험의

본질로 돌아가 원칙에 충실한 해법을 찾아나가야 한다. 건강보험이란 질병의 위험에 공동으로 대처하여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여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건강문제를 '공공재'로서 접근하여 사회적인 합의를 끌어내어야 한다.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은 「생애주기 건강증진프로그램」의 적극적 실시로 연간 국민의료비 6~7조를 절감시키고, 소액진료에 대해서는 자기책임성을 높이며, 의료정보화에 의한 효율성을 높여서 비용절감에 성공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의약분업이 장기적으로 건강을 향상시킬 선진화된 제

도입을 인식하고 필요한 부담을 감수하여야 한다. 의약종사자들도 지나치게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공익을 위해서 일정한 양보와 협조가 필요하다. 공단은 국민들이 납부한 보험료와 세금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진정한 대민 서비스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 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균형잡힌 대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러한 대안을 설득시키고 지지를 이끌어내는 추진전략을 섬세하게 고민함으로써 정책효과의 예측을 빚나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결국은 사회구성원들이 각자 국가의 이익 앞에서 다같이 토론의 장에 나와 사회적 합의를 모을 수 있는 성숙한 지혜를 발휘하여야 한다. 

건강보험이란  
질병의 위험에 공동으로 대처하여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여야 하는 것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건강보험의 본질로 돌아가  
원칙에 충실한 해법을 찾아나가야 한다.